



##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3) God Is Near (3)

위로가 필요할 때  
When Comfort Is Needed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1:1-11)

1. 느낌 대신 주신 약속을 붙잡으세요.  
Hold on to God's promises instead of your feelings.
2. 고난을 헛되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Trust in God who does not waste suffering.
3. 고난을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드리세요.  
Entrust your suffering to God for his use.

## 오이코스나눔지

odpcoikos

1.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오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느낌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 위해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When we go through suffering, we feel as if God is far away. We need to hold on to God's promise to escape from such a swamp of emotions. Apostle Paul held on to the promise of "the Father of mercies and God of all comfort." What is the promise you must hold on to?

2.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분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발견한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God uses our suffering as an instrument for his good purpose. Through his suffering Apostle Paul came to know God deeply and learned to live by relying on him. Suffering is beneficial to us. Have you discovered God's grace through suffering?

3. 하나님은 바울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을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Why me?"라고 불평하기보다 "Who else?"라고 기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God used Paul's suffering to comfort the Corinthian believers and draw them closer to himself. God can use our suffering for his greater purposes. What would it take to pray "Who else?" instead of complaining, "Why me?"